

차급·차종의 경계를 넘어서다

‘보더리스 SUV’ 쏘렌토 공개

〈국경 없는〉

4세대 쏘렌토 내·외부 디자인



KIA MOTORS

기존 SUV 전형성 완전히 벗어나 외장 디자인 ‘정제된 강렬함’ 콘셉트 내부는 직관적·고급스러움 강조 다이얼 방식 변속기로 사용성 향상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전측면.

기아차는 17일 완전히 새로워진 4세대 ‘쏘렌토’의 외부와 내부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형 쏘렌토는 다음달 중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차급과 차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카라이프를 만드는 ‘보더리스 SUV’라는 목표로 신형 쏘렌토를 완성했으며 이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신형 쏘렌토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는 ‘보더리스 제스처(경계를 넘는 시도로 완성된 디자인)’로 기존 SUV 디자인의 전형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인하면서도 정제된 외장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신형 쏘렌토의 전면부에는 진화한 ‘타이거 노즈’가 자리잡았다.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 중 하나인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 하나로 연결된 과감한 디자인으로 신형 쏘렌토의 강인하고 와이드한 인상을 완성했다.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완성한 ‘크리스탈 플레이크’ 디자인은 얼음과 보석의 결정을 모티브로 전면부의 입체적 조형미를 극대화했으며, 호랑이의 눈매를 형상화한 주간주행등(DRL)은 맹수의 눈을 바라보는 듯한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신형 쏘렌토에 부여했다.

측면부는 후드 끝부터 리어 램프까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실내모습.

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롱 후드 스타일’의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단단하면서도 풍만한 볼륨감을 선사한다.

후면부는 세로 조형과 와이드한 조형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강인하고 단단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벤틀리 타입 리어 램프는 대형 차명(테타 타입) 엠블럼, 와이드 범퍼 가니시 등과 대비를 이루며 후면부에 카리스마를 더했다.

내장 디자인은 직관적이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SUV를 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관성을 강화했다. 운전자는 새로운 기능적 감성 콘셉트의 센터페시아 설계를 통해 운전석에 앉아 첨단 기술이 선사하는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하고 확인할 수 있다. 12.3인치 클러스터(계기반), 10.25인치 AVN(오디오·

비디오·내비게이션) 등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SBW)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직관성과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신형 쏘렌토의 실내 공간에서는 세단의 섬세한 느낌도 경험할 수 있다. 신비한 느낌의 조명으로 실내 공간을 꾸미는 ‘크리스탈 라인 무드 라이팅’은 기존 중형 SUV와는 차별화된 세련된 감성을 제공하며, 촉각과 시각을 모두 사로잡는 고급 소재 및 가니시 입체 패턴은 실내의 감성 품질을 극대화했다. 상하 방향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에어 벤트는 기능적인 동시에 세로형 디자인 적용으로 안정적인 느낌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위니아대우 흑자전환... 1년만에 985억 수익제고

R&D 조직 결합·구조조정 추진
中·멕시코 공장서 원가 경쟁력 확보

위니아대우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조2740억원, 당기순이익 95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니아대우는 2018년 2월 대우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지 2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당시 당기순이익은 무려 890억원 적자였다. 1년만에 985억원 수익을 더 거둔 셈이다.

위니아대우는 2년여간 위니아딥체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2018년 연구개발(R&D)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물류센터와 부평연구소 등 중핵 자산을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위니아대우

매각했다.

해외법인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유럽과 말레이시아 등 만성적자에 빠진 동남아 법인을 합병해 고정비를 낮추는 등이다. 북미와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는 한류문화 열풍을 타고 실적을 개

선하기도 했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소형가전 비중도 높였다.

체질 개선도 이뤄졌다. 냉장고와 세탁기,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중국 천진과 멕시코 공장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냈다.

/김재용기자 juk@

현대차,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

민간·지자체 접목... 새모델 창출

전철과 버스, 택시 등을 통합 연계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추진

현대자동차의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현대차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중 모빌리티(Multi-Modal)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시한 ‘인천e음’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심의 교통,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자체의 행·재정력을 접목해 새로운 모델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모두 6곳의 예비사업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1년여 간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후속 평가를 거쳐 이날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부천시 등 3곳을 최종 본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현대차와 인천시가 진행중인 인천e음은 I-MOD(아이 모드)와 I-ZET(아



영종국제도시에서 현대차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선보인 수요응답형 버스 ‘I-MOD’와 전동킥보드 기반의 ‘I-ZET’ 시범서비스 모습.

이 제트)가 대표적이다. 아이 모드는 승객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가 생성되고 배차가 이뤄지는 수요응답형 버스다. 아이 제트는 전동킥보드로 버스 정류소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컨소시엄은 아이 모드와 아이 제트를 연동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교통수단인 전철과 버스, 택시 등을 통합 연계한 사회 참여형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및 통합 결제 서비스다.

이번 본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결과물은 세종 5-1 생활권,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의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적용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D 차량용 P올레드, ‘눈 편한’ 인증

눈부심·빛 반사도 기준치에 70% ↓

LG디스플레이 플라스틱 올레드(P올레드) 패널이 업계 최초로 눈을 편하게 하는 디스플레이로 검증됐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TÜV 라인란드에서 P올레드로 ‘아이 콤포트 디스플레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P올레드는 플라스틱 소재를 기반으로 쓴 제품으로, 다양한 형태로 장착 가능해 차량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차량용 패널이 눈 편한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은 것은 업계 최초로.

P올레드는 눈부심 관련한 빛 반사도 테스트에서 기준치(1%)보다 70%나 적은 최대 0.22% 반사도를 기록했다. 블루라이트 방출량도 기준치보다 절반인 23%였다. 차량용 LCD보다는 3분



이부열 LG디스플레이 R&D 전략담당 상무(왼쪽)가 홀거 쿤스 TÜV 라인란드 제품인증 사업부문 회장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LG디스플레이

의 1 수준이다.

LG디스플레이는 P올레드가 강한 햇빛이나 야간 운행시 더 편안한 운행을 돕고, 완성차 업체별 화질 요구 조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新가전 고객 자문단 2기 모집

가전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참여

LG전자가 함께 새로운 가전을 만들 고객을 찾는다. LG전자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LG 신가전 고객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자문단은 지난해부터 신가전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직이다. 가전제품 기획부터 출시 후 개선까지 참여하게 된다.

자문단 지원 자격은 서울이나 수도

권에 거주하는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 고객이다. 밀레니얼과 X세대, 베이비부머 등 여러 세대에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원을 40명 이상으로, 운영 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4월부터는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콘셉트와 디자인을 평가하게 된다.

/김재용 기자